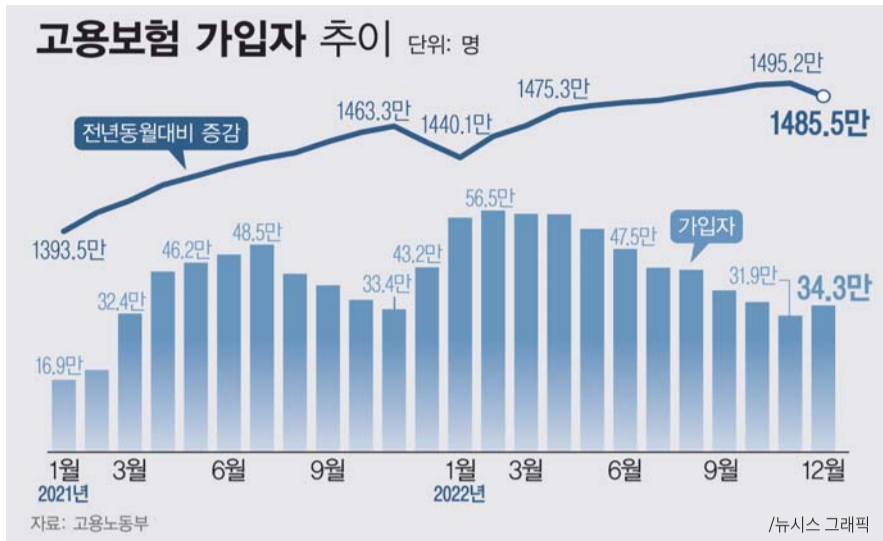


취업자 증가폭 간신히 30만명대... 29세 이하는 넉달째 감소

고용부, 1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 1485.5만명 가입, 2.4% ↑
공공행정 취업자 감소폭 커진 영향
서비스업가입자 전년비 24.5만명 ↑



작년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4만명으로 가까스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세 이하 취업자는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연초에도 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한파가 매세워 취업자 증가폭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3000명(2.4%)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2

월 56만5000명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로 축소됐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증가세를 떠받치고 있지만 고용의 절반 이상 차지해왔던 고령층 직접 일자리 등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며 전체 고용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분야의 감소폭이 -1만1000명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10월 5만5000명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5000명 증가했다.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도 대면활동이 정상화되며 4만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가입자는 37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생산,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와

맞물려 이 같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전년보다 3만명 줄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더구나, 청년층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다만, 60세 이상(20만2000명), 50대(11만1000명), 40대(4만명), 30대(2000명) 등 대부분 연령층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천 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4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6억원 감소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비용 2.6조 감축

농식품부,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농축산물 유통비용 비중 매년 늘어
5년내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입고부터 출고까지 자동·정보화
상반기 10대 품목 표준모델 마련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연내 개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연간 2조6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2.3%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유통비용 중 출하비용 비중은 11.7%에서 8.5%로 감소한 반면, 도매(9.4% → 10.8%), 소매(22.6% → 28.2%) 단계 비용은 상승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자 구조 변화에 맞춰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산지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

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감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양파, 마늘, 감자 등 10대 품목별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한다.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 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권역별 거점 구축도 검토한다.

농산물 물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엔 축산, 2027년엔 식품·양곡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한다.

민간 유통혁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올해 마련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유통시스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유통경로별로 구분하는 등 유통법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국 동부 쑤저우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민족 대이동 기간인 '춘원'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신화·뉴스

中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났다... 경제 '반등'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춘원' 시작에 각종 지표 회복세
도로·철도·항공 등 39% 급증

중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살아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 유명한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렸다. 특히 대이동 기간인 '춘원'이 시작되면서 이동 등 각종 지표가 눈에 띄게 회복됐다.

10일 차이신에 따르면 춘원 첫 날인 지난 7일 도로, 철도, 항공 등 전국의 승객 수송규모는 약 3470만명으로 전년 대비 39%나 급증했다. 다음날에도 수송객은 3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춘원은 춘절 연휴 전후로 40일간의 민족 대이동 기간을 말하며, 올해는 이달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춘원 동안 이동규모가 총 21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주요 도시의 교통량도 일제히 반등했다.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NEF가 바이트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15개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은 2021년 1월 수준의 116%까지 급증했다. 주요 도시의 지하

철 이용량도 작년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계속 늘었다. 11개 주요 도시의 일일 지하철 승객 수는 지난 한 주간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하철 사용 및 교통 혼잡의 급증을 보여주는 이동성 지표와 함께 여행의 증가는 중국 경제 전망에 좋은 징조"라며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악의 상황을 지났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 중이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보다 빠른 위드코로나를 이유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8%로 1%포인트나 높였다.

OCBC 토미체는 "중국의 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며 "남부 관광지인 하이난의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위드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베이징과 청두같은 도시들은 교통 이동 수준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춘원 기간의 첫째날과 둘째날의 승객 수는 2019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40일간 전체로 보면 이동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70%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삼미 기자 smah1@W

삼성전자, TSMC에 파운드리 역전 기대감

>> 1면 '혹한기 반도체 바닥 압박'서 계속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이퍼 엿지 활용은 물론 EUV 공정에서 높은 숙련도와 함께 멀티레이어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4분기 경쟁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도 D램에서는 여전히 흑자를 이어간 비결이다.

삼성전자가 감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만큼 감산을 통해 공급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종희 부회장이 최근 CES2023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투자를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12나노급 D램 양산과 합

계 팹릭캠퍼스 생산라인 확대 등을 지속하면서 생산을 늘리려는 분위기다.

시선은 파운드리 경쟁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최근 TSMC도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면서 초기세 경쟁이 본격화한 것.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게이트올라온드(GAA)까지 적용한 3나노 공정을 가동하며 수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수주전'에 돌입한 상태다. TSMC가 대형 고객사인 애플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지만, 수율을 과장한다는 의혹 등 실제 기술력에 의문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역전'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재용 기자 juk@